

慕夏堂述懷歌(모하당술회가)

김충선(金忠善, 1571~1642)¹⁾

- 고딕체 주석은 미주임.
- 아래의 내용 구분은 윤영옥의 "모하당의 문학" (민족문화논총. 23호, 2001)에 따른 것이며, 'ㅍ'의 내용 구분은 주해자가 임의로 한 것임.

I.

어와 이너 平生(평생) 凶險(흉험)도 홀서이고
넓고도 넓은 天下(천하) 어이하여 마다 하고
남만[南蠻] 좌임향[左衽鄉]²⁾에
격설風[馱舌風]의 生長(생장)하여
中夏(중하)³⁾의 죠흔 文物(문물) 一見(일견)이 願(원)닐너니
明天(명천)이 잇뜻 알고 鬼神(귀신)이 感動(감동)하여
괴 어인 淸正(청정)⁴⁾이 東伐朝鮮(동벌조선) ㅎ을 적에
年少(연소) 無識(무식) 이너 몸을
先鋒將(선봉장)을 숙여단너
非義興師(비의흥사) ㅎ는 줄를
心中(심중)에 알것마는
東土(동토)의 禮義邦(예의방)을 ㅎ 변 귀경 ㅎ려 ㅎ고
諒若欣然(양약흔연) 仗鉞下(장월하)⁵⁾에
先鋒將(선봉장)이 되올 적의
誓不復還(서불복환) ㅎ량으로
意中(의중)에 決斷(결단) ㅎ고
先墳(선분)의 ㅎ직 ㅎ고 親戚(친척)을 離別(이별) ㅎ며
七兄弟(칠형제) 두 안히을 一時(일시)의 다 썩나니
슬픈 마음 설은 뜻지 업다 ㅎ면 빈말이라
行軍(행군) 북 ㅎ 소리에 발선[發船]을 ㅎ단 말가

어와 이내 평생, 흥하기도 하였구나.
넓고도 넓은 천하 어이하여 마다하고
왼쪽으로 옷깃 여미는 남쪽의 오랑캐 땅
때까치가 지지 괴는 야만의 땅에 자라나서
중화의 좋은 문물 한 번 보기 원하더니
하느님이 이 뜻 알고 귀신이 감동하여
그 어인 가등청정 조선 정벌 하올 적에
어리고 무식한 이내 몸을
선봉장을 시켰다네.
군대를 일으킴이 의리에 어긋남을
마음으로 알건마는
예의 바른 동쪽 땅 구경 한번 하려 하고
흔연하게 살펴보려 큰 도끼를 손에 쥐고
선봉장이 되올 적에
맹세코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양으로
마음 속에 결단하고
선친 묘에 하직하고 친척들과 이별하며
칠 형제 두 아내 곁 일시에 다 떠나니
슬픈 마음 설운 뜻이 없다 하면 빈말이라.
행군 북 한 소리에 배 떠났단 말인가.

1) 1592년 임진왜란 당시 귀화할 때부터 1642년에 생을 마칠 때까지 조선군으로 활약하며 임진왜란, 이괄의 난, 병자호란 때 혁혁한 공을 세워 '삼란공신(三亂功臣)'으로 불림.

2) '남만'은 작자의 고향인 일본. '좌임향'은 옷깃을 왼쪽으로 여미는 오랑캐를 의미함.

3) 중화(中華). 하(夏)는 중국 하(夏)나라를 말함. 이 글에서 작자는 '하(夏)'를 '화(華)'의 의미로 쓰고 있음. 이 글의 제목이자 작자의 당호인 '모하(慕夏)'도 '모화(慕華)'의 의미임.

4) 임진왜란 당시 왜군의 장수로 우리나라를 침략한 일본의 무장인 가토 기요마사(加藤淸正).

5) 원래는 도끼는 전쟁 무기였으나, 후대에는 크기를 작게 하여 전장에 나가는 장수들에게 내려 병권을 장악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되었음.

劒戟(검극)은 秋霜(추상) 갖고 旌旗(정기)는 蔽日(폐일)한다
扣枻乘流(구예승류)하여
順風(순풍)을 기다으니
雄心(웅심)은 썩어 나고 壯氣(장기)도 함도 홀스
長劒(장검)을 썩여 들고 船上(선상)에 의지하니
天地間(천지간) 壯(장)한 氣운(기운) 나쁜인 듯하여도다
놉플사 大板城(대판성)¹⁾은 海中(해중)에 嵯峨(차아)하고
雄壯(웅장)하다 對馬島(대마도)는 東國(동국)이 여기로다
黑龍歲(흑룡세) 黑蛇月(흑사월)²⁾에 渡海(도해)을 하단 말가

II.

귀로 들은 朝鮮國(조선국)이 눈의 보니 여기로다
山川(산천)을 둘러보고 人物(인물)을 살펴보니
衣冠(의관)도 제제[濟濟]하고 禮樂(예악)³⁾도 식식홀스
康衢(강구) 적 烟月(연월)⁴⁾인가
太古(태고) 적 春臺(춘대)⁵⁾런가
三代(삼대)⁶⁾ 風俗(풍속) 아니런가
東魯至治(동로지치)⁷⁾ 여기로다
大中夏(대중하) 저러한가 小中夏(소중하)⁸⁾ 거룩홀스
禮樂(예악)도 빈빈[彬彬]하고 民物(민물)도 찬란하다
中心(중심)이 恍惚(황홀)하여
如狂如癡(여광여치) 欽慕(흠모)하니
用夏變夷(용하변이) 하올 뜻지
藹然(애연)이 소사 나니
手下(수하)에 三千兵(삼천병)은 梟雄(효웅)도 홀서이고
他國兵(타국병) 왔다 하고 人民(인민)이 騷動(소동)하니
曉諭書(효유서)¹⁾ 급히 지어 거리거리 掛榜(괘방)하고
講和書(강화서)²⁾ 一邊(일변) 지어 東國(동국)에 投托(투탁)하니⁹⁾
孔孟(공맹)에 道德 禮意(도덕 예의) 親(친)니 아니 불겨니고
侏俚俗(주리속) 다 버리고

창칼은 찬서리 같고 깃발들은 해 가린다.
돛대를 두드리며 물결 타고 흘러가려
순한 바람 기다리니
사내 마음 빼어나고 장한 기운 크고 클 사
큰 칼을 빼어 들고 선상에 의지하니
천지간에 장한 기운 나쁜인 듯 하였도다.
놉구나, 대판성은 바닷속에 높이 험하고
웅장하다, 대마도는 동으로 가는 길목이라.
임진년 음력 사월 바다를 건넌구나.

귀로 들은 조선국이 눈에 보니 여기로다.
산천을 둘러보고 인물을 살펴보니
의관도 엄숙하고 예악도 씩씩하다.
번화한 큰 거리에 달빛이 은은한가.
태고 때의 태평한 세상인가.
삼대의 풍속이 아니런가.
공자의 가르침이 있는 곳이 여기로다.
대중화 저러한가 소중화 거룩할 사
예악도 훌륭하고 백성 재물도 찬란하다.
내 마음이 황홀하여
미치광이 바보같이 흠모하니
중화의 예의로써 오랑캐를 바꿀 뜻이
부드럽게 솟아나네.
부하들 삼천 병사 사납기도 하였어라.
타국 병사 왔다 하고 백성들이 소동하니
효유서 급히 지어 거리거리 내어 걸고
강화서 한 편 지어 조선에 의탁하니
공맹의 도덕 예의 친히 아니 보겠는가.
오랑캐의 말과 풍속 다 버리고

1) 오사카성.

2) 임진년(1592, 선조 25년), 음력 4월, 작자 나이 22세 때.

3) 예법과 음악.

4) 번화한 큰 길거리에서 달빛이 연기에 은은하게 비치는 모습을 나타내는 말로, 태평한 세상의 평화로운 풍경을 이르는 말.

5) 봄의 전망 좋은 고층 전각이라는 뜻으로 전하여 성한 세상을 비유하는 말.

6) 중국 상대(上代)의 하(夏), 은(殷), 주(周)의

7) 공자가 태어났던 노나라,

8) '대중하'는 중국, '소중하'는 조선.

9) 작자는 경상도 병마절도사 박진(朴晉)에게 귀순하였음.

揖讓風(읍양풍)의 나아가니
 幽谷(유곡)에 들었든 식
 喬木(교목)에 치닫난 듯
 밤길로 가던 소경 日月(일월)을 보왔난 듯
 東邦聖君(동방성군)¹⁾ 피압고세 萬古太平(만고태평) 누류리라

III.

勇略(용략)을 다시 너고 壯氣(장기)을 收拾(수합)하여
 실이城(시루성) 혼 사흙에 屢千級(누천급)²⁾ 斬首(참수)하니
 이거시 뉘 공인고 聖上(성상)의 德(덕)이로다
 그 어인 節度使(절도사)가 褒啓(포계)을 하단 말가
 玉音(옥음)이 丁寧(정녕)홀스
 乘駟上來(승일상래) 시겨시니
 王命(왕명)을 피압고스 蒼黃(창황)이 入京(입경)하여
 彤庭(동정)에 試藝(시예)하고
 天褒(천포)를 猥蒙(외몽)하니
 私分(사분)이 未安(미안)하여
 感泣(감읍)이 漣漣(연연)하니
 하물며 草資階(초자계)가 職嘉善(직가선)³⁾ 나리시니
 하물며 羈旅人(기려인)니 恩寵(은총)을 猥蒙(외몽)하고
 隕首(운수)와 結草語(결초어)는 넷말노 들었더니
 罔極(망극)홀스 聖恩(성은)이야 이 너 몸의 미쳐서라
 天敎(천교)를 미압고스
 轅門(원문)에 도라오니
 一心(일심)이 未懈(미해)하여
 報恩(보은)을 思慕(사모)터니
 이달올스 天朝兵(천조병)이 賊謀(적모)에 빠진 비라⁴⁾
 提督(제독)이 大怒(대노)하여 우리 元帥(원수) 베려 하니⁵⁾
 軍令狀(군령장)³⁾ 急(급)히 들고 伏地(복지)하고 알원 말씀
 왜장두[倭將頭] 버혀 들어
 元帥(원수) 贖命(속명) 하오리다

예를 다해 사양하는 풍속으로 나아가니
 아늑한 골짜기에 들었는 듯
 곧은 나무 하늘로 치닫는 듯
 밤길 가던 소경 해와 달을 보게 된 듯
 동방 성군 뵈옵고서 만고 태평 누리리라.

용기 지략 다시 내고 장한 기운 거두어서
 시루성 한 싸움에 천여 급을 참수하니
 이것이 뉘 공인가, 성상의 덕이로다.
 그 어인 절도사가 임금에게 아뢰었다.
 성상 말씀 정녕히 간곡하여
 역마 타고 서울로 올라오라 명 내리니
 왕명을 받들고자 겨를없이 입경하여
 궁궐 뜰에서 재주를 시험받고
 성상이 상을 내려 외람되이 받게 되니
 내 분수가 미안하여
 감격하여 흐느낌이 이어지고
 하물며 첫 관직을 가선을 내리시니
 하물며 나그네가 외람되이 은총 받아
 죽는 일과 결초보은 옛말로 들었더니
 망극할 사 성은이야, 이내 몸에 미쳤어라.
 하늘의 가르침을 모시고서
 군영으로 돌아오니
 이 마음이 느슨하지 아니하여
 보은으로 사모하려 하였더니
 애달파라, 명군대가 적 모략에 빠진 바라
 제독이 대로하여 우리 원수 베려 하네.
 군령장 급히 들고 앞드려서 아뢴 말씀.
 왜장의 머리 베어 바치려니
 원수의 죄지음을 용서하소서.

1) 여기에서의 임금은 선조(宣祖)

2) '시루성'은 증성(甞城)으로 울산에 있는 조선 후기 왜군이 쌓은 일본식 성곽. 시루를 얹어 놓은 것 같다고 하여 시루성이라고 하였음. 울산성 전투라고도 하며, 1598년 1월에 있었음. '급'은 전쟁에서 죽인 적의 목을 세던 단위.

3) 가선대부(嘉善大夫). 종2품의 문무관의 품계.

4) 앞부분의 내용과 순서가 바뀐 듯함. 아래의 내용은 1597년 10월에 있었던 전투임.

5) '제독'은 명나라 장수였던 마귀(麻貴) 제독. '원수'는 조선 장수 김응서(金應瑞). 마제독이 김응서에게 증성을 치게 하였는데, 김응서가 패하고 돌아오자, 제독이 군율로 김응서를 벌하려 했던 일.

三尺劒(삼척검) 빗겨 들고 甌城(증성)에 突入(돌입)하니
 석 맛참 이경[二更]¹⁾이라 鼓喊(고함)하고 충돌하니
 匹馬(필마) 單劍(단검)의 對賊(대적)하 리 그 뇌런고
 數千級(수천급) 賊首(적수)을 片刻(편각)에 버혀다가
 大都督(대도독) 將臺下(장대하)²⁾의 再拜(재배)하고 되리시며
 天將(천장)이 大喜(대희)하여 上達天聽(상달천청)하섯도다
 資憲階(자헌계) 賜姓名(사성명)³⁾이
 一時(일시)에 特降(특강)하니
 어와 聖恩(성은)니야 갑기도 罔極(망극)하다
 이 너 몸 가리 된들 이 恩惠(은혜) 갑플소냐
 竭忠報國(갈충보국)하올 길이
 아마도 업스로다
 슬프다 우리 聖君(성군) 義州(의주)로 播遷(파천)하스
 一國 臣民(일국 신민)이 뇌 아니 痛哭(통곡)하리
 죽을 힘 다 들어서 賊陣(적진)을 破滅(파멸)하고
 君父讐(군부수) 갑푼 휴에 會宴(회연)을 하오리라
 東國 兵器(동국 병기) 도라보니 精妙(정묘)도 적을시고
 이 兵器(병기) 가지고서 破賊(파적)을 어이하리
 鳥銃(조총)과 火藥法(화약법)을 各陣(각진)에 敎訓(교훈)하니
 한두 달 지닌 휴의 一等(일등) 兵器(병기) 되단 말가
 八年(팔년)⁴⁾을 橫行(횡행)하야 勝戰(승전)을 쾌(쾌)이 하고
 獻捷九重(헌첩구중)하온 후에
 嶺南(영남)⁵⁾ 奠居(전거) 시겨시니

마음을 거지 노코 山中(산중)의 누웠더니
 이 어인 北方(북방) 근심 희마당 일어나니
 朝家(조가)의 不幸(불행)니라
 乙夜憂(을야우) 기치신니
 天門(천문)의 因見(인견)하스 防憂策(방우책)을 못자오며
 너 비록 무직[無才]하느
 效死竭忠(효사갈충) 안닐쇼냐
 彤階(동계)⁶⁾의 四拜(사 배)하고 所懷(소회)을 알윈 말습

삼척 검 비껴들고 시루성에 돌입하니
 때마침 이경이라, 고함치고 충돌하니
 필마 단검에 대적할 이 그 뇌런가.
 수천 급 적의 머리 삽시간에 베어다가
 대도독 장대 아래 절 올리고 드리오니
 명 도독이 크게 기뻐 명 황제께 아뢰었네.
 자헌 벼슬 내리시고 이름을 내리시기
 일시에 특별히 내려지니
 어화 성은이야, 갑기도 망극하다.
 이내 몸이 가루 된들 이 은혜 갚을 소냐.
 충성을 다하여 나라에 보답할 길
 아마도 없으리라.
 슬프다, 우리 성군 의주로 피난하니
 이 나라의 신민으로 누구 아니 통곡하리.
 죽을힘 다 들어서 적진을 파멸하고
 임금 원수 갚은 후에 모여 잔치 하오리라.
 조선 병기 돌아보니 정밀함도 적을시고,
 이 병기 가지고서 적을 어이 무찌르리.
 조총과 화약 쓰는 법을 각 진에 가르치니
 한두 달 지난 후에 일등 병기 되었는가.
 팔 년을 오고 가며 승전을 시원히 하고
 궁궐에 승리했단 보고를 올린 후에
 영남에서 자리 잡고 살았더라.

마음을 거의 놓고 산중에 누웠더니
 이 어인 북방 근심 해마다 일어나니
 조정의 불행이라.
 성상께서 이경이 되도록 근심하다
 대궐로 부르시어 방비책을 물으시니
 내 비록 재주가 없었으나
 목숨 다해 충성하지 않겠느냐.
 붉은 계단에 네 번 절해 소회를 아뢰면서

1) 오후 9시부터 11시까지

2) '대도독'은 마귀제독. '장대'는 돌로 쌓아 만든 장수의 지휘대.

3) '자헌'은 정이품 문무관의 품계. 작자는 이때 '김해김씨'의 성씨를 받게 되는데 기존의 김해김씨와 구분하여 '사성김해김씨'로 불리게 됨.

4) 임진왜란, 정유재란의 팔년 간의 전쟁.

5) 현재 경북 달성군 가창면 우록리.

十年(십년) 仍防(잉방) 自願(자원) 訶여¹⁾
北方(북방) 근심 탕척[蕩潑] 訶고
楓階(풍계)의 도라와서 復命(복명)을 訶을 적의²⁾
後苑(후원)의 因見(인견) 訶스 盛饌(성찬)으로 먹여시니
盤中(반중)의 點點珍羞(점점진수)
맛맛시 영충[榮寵]³⁾이요
잔 속의 가득한 술
먹음 먹음 은파[恩波]로다
訶물며 二品(이품) 正憲(정헌)⁴⁾ 높품도 높거니와
教旨中(교지중) 八字明書(팔자명서)⁵⁾
煌煌(황황)히 빛날시고
너 엇지 外國(외국) 賤俘(천부)
이디도록 榮寵(영충) 訶고
도로혀 성만계(盛滿戒)가 흉중[胸中]의 썩여 나니
卒富貴(졸부귀) 不祥語(불상어)를
옛말로 들었더니
동토[東土]에 投托(투탁) 訶지 禮義(예의)도 欽慕(흠모) 訶고
子孫(자손)이나 기쳐 두고 중화인(中華人) 습아시미
富貴(부귀)도 念(염) 밋기요 功名(공명)도 뜻 밋기라
오날날 부귀공명(富貴功名) 千古(천고)의 업슬시고
天階(천계)의 하직 訶고 鄉里(향리)의 도라와서
私分(사분)에 惶恐(황공) 訶여 밤낮지로 未安(미안)터니

仁廟朝(인묘조) 甲子歲(갑자세)에 逆适(역괄)이 謀叛(모반) 訶 제⁶⁾
그 어인 一封(일봉) 凶檄(흉격)
忽然(홀연)이 威脅(위협) 訶니
제 비록 공갈 訶느 너 엇지 應(응) 訶소냐
檄書(격서)을 裂破(열파) 訶고 适使(괄사)을 버혀 달고
焚香祝天(분향축천) 六日(육일) 訶야
討賊平亂(토적평란) 願請(원청) 訶니
元兇(원흉)은 就殲(취섬) 訶느 餘黨(여당)이 남아 이서⁷⁾

잉방 직을 십 년 동안 자원했네.
북방 변경 근심을 쓸어내고
풍계에 돌아와서 복명을 하올 적에
후원으로 부르시어 좋은 음식 먹이시니
쟁반 가득 점점 담긴 진수성찬
맛맛마다 임금의 은총이요
잔 속에 가득한 술
먹음 먹음 임금의 은혜로다.
하물며 이품 정헌 높음도 높거니와
교지 중 여덟 자 밝은 글씨
밝게도 빛날시고
내 어찌 외국의 천한 포로로
이토록 은혜를 받음인가.
도리어 가득 차서 가슴에 쌓였으니
갑자기 부귀하면 상서롭지 못하다는 말
옛말로 들었더라.
동쪽 땅에 투항하여 예의도 흠모하고
자손이나 끼쳐두고 중화인 삼았으며
부귀도 생각 밖이요, 공명도 뜻밖이라.
오늘날 부귀공명 천고에 없으리라.
천계에 하직하고 향리에 돌아와서
내 분수가 황공하여 밤낮으로 미안터라.

인조 임금 갑자년에 이괄이 모반할 제
그 어인 한 통의 역적이 보낸 격문
홀연히 위협하니
제 비록 위협하나 내 어찌 응할 소냐.
격서를 찢고 나서 이괄 사신 베어 달고
엿새 동안 향을 피워 하늘에 빌고 나서
도적을 쳐 난리를 평정하기 청하였더니
원흉은 섬멸하나 잔당이 남아 있어

6) 대결의 계단

1) '잉방'은 국경을 지키는 장수. 이때는 1603년으로 작자 나이 33세 때.

2) '풍계'도 '단계'와 마찬가지로 궁궐의 계단.

3) 여기서의 임금은 광해군임.

4) 정헌대부(正憲大夫). 정이품 문무관의 품계

5) '자원잉방 기심가가(自願仍防 其心可嘉, 자원하여 계속 변경을 지켰으니 그 마음 가상하다)'

6) 1624년(인조 2년). 작자 나이 54세.

暴悍(폭한)홀스 徐牙之(서아지)은 왜중[倭中]의도 飛將(비장)이라
 東西橫行(동서횡행) 作亂(작난)하여
 爲國大患(위국대환) 되어 잇네
 慶尙道(경상도) 監兵營(감병영)이
 四方發捕(사방발포) 하여시나
 뉘라서 犯接(범접)하여 어이하여 잡을소냐
 朝令(조령)이 급피 날여
 斬捕牙之(참포아지) 시겨시니
 잡다가 못 잡은들 王命(왕명)을 거슬소냐
 單騎(단기)로 逐踏(축답)하여 金海(김해)로 쫓차가니
 嶺南藪(영남수) 김푼 곳의 牙賊(아적)을 만나보고
 奇計(기계)을 씀여 닌여 權道(권도)로 잡으리라
 온언[溫言]으로 위로하고
 진정으로 기유[開諭]하여
 旨酒(지주)로 相勸(상권)하여 終日(종일)토록 먹은 후에
 不省人事(불성인사) 醉倒(취도)커날 寶劔(보검)을 先奪(선탈)하고
 軍卒(군졸)을 號令(호령)하여
 縛致麾下(박치휘하)하던 말가
 제 아무리 飛將(비장)인들
 升天入地(승천입지) 홀작소냐
 邦憂(방우)을 快除(쾌제)하고 九重(구중)의 獻馘(헌괵)¹⁾ 하니
 宗社(종사)의 幸(행)이 되고 國家(국가)의 福(복)이로다
 聖上(성상)의 神功(신공)으로
 殲賊平亂(섬적평란)하여시니
 歷歷(역력)히 헤여 보니 이니 공이 아니로다
 惶恐(황공)홀스 田民賜牌(전민사패)
 因傳敎(인전교) 나리시니
 은슈[恩數]도 가이 업고 感泣(감읍)이 無窮(무궁)하나
 王事(왕사)이 盡力(진력)함이 臣子(신자)의 職分(직분)니라
 牙賊(아적)의 일과두[一裹頭]로 賞(상)을 어이 받자올가
 닌 엇지 臣子(신자)로서 이 민전[民田] 차지하리
 구터여 辭讓(사양)하고 나죠키 還納(환납)하여
 守禦廳(수어청) 屯田(둔전)²⁾ 솜아 군량을 붓티리라
 壬甲(임갑)³⁾ 兩亂(양란) 平定(평정) 후이

사납구나, 서아지는 왜군 중에 날랜 장수라.
 동서로 오고 가며 장난하니
 나라의 큰 우환이 되어 있네.
 경상도 감영과 병영에서
 사방으로 발포를 하였으나
 뉘라서 범접하여 어이하여 잡을 소냐.
 조정에서 영을 급히 날려
 서아지를 잡아내어 참하라 시켰으니
 잡다가 못 잡은들 왕명을 거스릴까.
 단기로 뒤를 밟아 김해로 쫓아가니
 영남의 늪 깊은 곳에 아지를 만나보고
 계략으로 꾸며내어 타일러서 잡으리라.
 부드러운 말씨로 위로하고
 진정으로 타일러서
 맛좋은 술 서로 권해 종일토록 먹은 후에
 인사불성 취하거늘 보검을 먼저 빼앗고
 군졸을 호령하여
 묶어서 휘하로 끌어온단 말인가.
 제 아무리 날랜 장수인들
 하늘로 솟을 건가, 땅으로 들겠는가.
 우환을 제압하고 궁궐에 귀 바치니
 종사에 행운이요 국가의 복이로다.
 성상의 신공으로
 역적을 섬멸하고 난리를 평정하니
 역력히 헤아리니 내 공이 아니로다.
 황공할 사 땅과 노비 내리라고
 전교를 내리시니
 은혜도 끝이 없고 감격함이 무궁하여
 왕을 위해 힘 다함이 신하된 자 직분이라.
 아지의 머리 하나로 상을 어이 받자올까.
 내 어찌 신하로서 노비와 밭 차지하리.
 구태여 사양하고 나중에 도로 바쳐
 수어청 둔전 삼아 군량을 보태리라.
 임진란 갑자란 평정 후에

7) 이괄의 난 때, 북방을 방어하던 항왜(降倭) 130여 명이 난에 이괄에 가담하였는데, 항왜 서아지(徐牙之)는 부장으로 난에 가담했다가 난이 진압되자, 밀양지방을 거쳐 일본으로 도망가려고 하였음.

1) 적이나 도적을 죽이고 그들의 머리나 왼쪽 귀를 베어 임금에게 바치는 의식.

2) '수어청'은 남한산성을 지키던 군영(軍營). '둔전'은 주둔병의 군량을 자급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던 밭.

혈마 國亂(국란) 또 이실가

설마 국란이 또 있을까.

邦厄(방액)이 못다 하고 時運(시운)이 不幸(불행)하여
丙子歲(병자세)¹⁾ 十二月(십이월)에
淸兵(청병)이 大驅(대구)하니
都城(도성)은 함몰하고 大駕(대가)²⁾난 播遷(파천)하여
인민(人民)을 겁약(怯掠)하고 조야(朝野)가 산란(散亂)되니
심신이 아득하고 간장이 썩어 너니
行李(행리)을 직촉하여 匹馬(필마)로 달여오니
賊陣(적진)은 雲屯(운둔)하고
殺氣(살기)은 蔽天(폐천)이라
경안교[慶安橋] 다다라서 賊勢(적세)을 살펴보니
強弱(강약)이 不敵(불적)하여
朝夕(조석)에 망키 되니
하날게 祝手(축수)하고 決死生(결사생) 하오리라
手下(수하)에 팔인 軍兵(군병) 다만 一百(일백) 원썬이라
長劔(장검)을 낚피 들어 용맹(勇猛)을 다시 너여
좌충우돌[左衝右突]하며 삼 세뎃 짓쳐 가니
數千萬(수천만) 胡賊兵(호적병)이 칼 쏘틱 풀입히라
卯辰時(묘진시)³⁾ 두 시간에 누만급[累萬級] 참수하니
賊屍(적시)가 如山(여산)하며 流血(유혈)이 시늬 되니
胡兵(호병)에 버힌 머리 일우 헤지 못 하로다
죽은 놈의 코만 버혀 戰帑(전대) 속에 여혀 너니
意氣(의기)가 승승[乘勝]하여
胡陣(호진)에 축답[蹴踏]하니
億千萬(억천만) 兵馬(병마)라도 一身(일신)으로 당하로다
天意(천의)가 슬토던지 鬼神(귀신)이 식기던가
그 어인 火藥庫(화약고)에 失火(실화)을 하단 말가
兵器(병기)가 탕연[蕩然]하고 勇氣(용기)가 최찰[摧折]하니
아무리 영웅인들 用武(용무)할 길 전이 업다
陣勢(진세)을 둘러보고 賊情(적정)을 探知(탐지)하니
아마도 고군[孤軍] 弱卒(약졸)
強弩末勢(강노말세)⁴⁾ 하 리 업서

나라의 액운이 못하라고 시운이 불행하여
병자년 십이월에
청나라 군사들이 크게 몰려오니
도성은 함몰되고 성상은 파천하여
백성들을 노략질하고 조야는 흩어지니
심신이 아득하고 간장이 썩어지네.
행장을 재촉하여 필마로 달려오니
적진은 구름처럼 모여있고
살기는 하늘을 가리더라.
경안교 다다라서 적세를 살펴보니
강한 적을 약함으로 대적하지 못하여서
조석으로 망하게 되었으니
하늘에 손모아 빌고 삶과 죽음 정하려니
수하에 딸린 군병 다만 백오십 뿐이라.
큰 칼을 높이 들어 용맹을 다시 내어
좌충우돌 삼을 베듯 짓쳐 가니
수천만 호병들이 칼끝에 풀잎이라.
묘진시 두 시간에 수만 급을 참수하니
적 시체 산과 같고 흐른 피가 시내 되네.
호병의 벤 머리 이루 헤지 못하로다.
죽은 놈의 코만 베어 전대 속에 넣어 내니
의기가 싸움에서 이기는 형세 되어
오랑캐 군대를 짓밟으니
억천만 병마라도 한 몸으로 당하로다.
하늘 뜻이 싫었던지 귀신이 시기하나.
그 어인 화약고에 실화가 일어났다.
병기가 텅 비게 되고 용기가 꺾였으니
아무리 영웅인들 군사 부릴 일 전혀 없다.
적 진영을 둘러보고 적 정세를 탐지하니
아마도 외딴 군대 약한 군졸들이
힘차게 쏜 화살도 힘 떨어져

3) 왜란과 이괄의 난.

1) 1636년의 병자호란. 작자 나이 66세.

2) 임금의 가마

3) 아침 다섯 시에서 아홉 시까지.

4) 힘차게 쏜 화살도 마지막에는 힘이 떨어진다는 뜻으로, 아무리 강한 힘도 결국 쇠퇴하고 마는 것을 이르는 말.

찰아리 파진[罷陣]하고 扈從聖君(호종성군) 호오리라
 탄 말을 돌려 몰아 幸在所(행재소)¹⁾로 가단 말가
 南韓(남한)에 得達(득달)하여 城門(성문)의 들어 흘 제
 胡兵(호병)이 위와사고 講和(강화)을 하단 말가
 듯자 하니 斷腸(단장)이요 보자 하니 傷心(상심)이라
 長劒(장검)을 싸를 치고 賊鼻(적비) 戰鬪(전대) 편지 노코
 痛哭(통곡)하고 물너서니 胸膈(흉격)이 막키이네

IV.

슬프다 神宗皇帝(신종황제)²⁾ 東國(동국)을 救(구)하더니
 東國(동국)이 扁小(편소)하여 報恩(보은)할 길 전혀 업다
 胡兵(호병)이 充斥(충척)하여 神州(신주)³⁾가 녹침[陸沈]하니
 이직 와 헤게 되면 白骨(백골)이 難忘(난망)나라
 기 어이 저버리고 犬羊(견양)⁴⁾ 天地(천지) 섬길소냐
 禮儀 東方(예의 동방) 귀한 일흠 오늘날 업기 되야
 春秋大義(춘추대의) 고사하고 舊恩(구은)을 이질소냐
 數千載(수천재) 魯仲連(노중련)⁵⁾이 기 아니 붓글일가
 淸陰公(청음공)⁶⁾ 당당 大義(대의)
 講和書(강화서) 裂破(열파)타니
 吳(오)교리 尹(윤)교리와 洪(홍)장녕⁷⁾의 斥和疏(척화소)은
 秋霜(추상)이 凜凜(늑름)하고 丹忠(단충)이 貫日(관일)하니
 一相公(일상공) 三學士(삼학사)는 天下(천하)의도 有光(유광)할스
 萬古(만고) 綱常(강상)⁸⁾ 발가 잇고
 千秋(천추) 당론(讜論) 거룩하다
 이 닉 몸 죽어지여 九原(구원)⁹⁾에 녀시라도
 四君子(사군자)¹⁰⁾ 팔아단녀
 義魄忠魂(의백충혼) 참여코저
 英雄 壯士(영웅 장사) 一寸 肝腸(일촌 간장)

차라리 군 파하고 임금 수레 따르리라.
 탄 말을 돌려 몰아 행재소로 간단 말인가.
 남한산성 득달하여 성문에 들려 할 제
 호병이 에워싸고 강화를 한단 말인가.
 듣자 하니 장 끊기고 보자 하니 상심이라.
 큰 칼로 땅을 치고 적의 코를 던져 놓고
 통곡하고 물러서니 가슴이 막히었네.

슬프다 신종 황제 조선을 구하더니
 조선이 협소하여 보은할 길 전혀 없다.
 호병이 가득하여 신주가 망하게 되니
 이제 와 헤아리니 백골도 잇기 어렵도다,
 그 어이 저버리고 개와 양을 섬길 소냐.
 동방예의 귀한 이름 오늘날 없게 되어.
 큰 의리는 고사하고 옛 은혜를 잊을 소냐.
 수천 년전 노중련이 그 아니 부끄러울까.
 청음공은 당당한 큰 뜻으로
 강화서를 찢어버렸고
 오달제, 윤집, 홍익한의 척화 상소
 서릿발처럼 늑름하고 충성심이 해 뚫으니
 한 재상 세 학사는 천하에도 빛나누나.
 먼 옛날의 삼강과 오상은 밝아 있고
 먼 미래에도 곧은 말이 거룩하다.
 이내 몸이 죽어가서 무덤의 낮이라도
 네 군자 따라다녀
 의롭고 충성스런 혼백에 참여하리.
 영웅과 장사들의 한 조각 간장이

1) 임금이 거동할 때 일시 머무는 곳.

2) 명나라의 마지막 황제.

3) 만주 지역에 있던 중국의 지방 행정 구역.

4) 만주족(청나라).

5) 중국 전국시대 제(齊)나라의 높은 절의를 가진 은사. 무도한 진(秦)나라가 천하를 차지한다면 동해로 걸어 들어가 죽겠다고 맹세하였음.

6) 병자호란 때 척화파였던 청음 김상헌(金尙憲).

7) 병자호란 때 척화를 주장했던 삼학사(三學士). 오달제(吳達濟), 윤집(尹集), 홍익한(洪翼漢).

8) 삼강과 오상. 삼강은 군위신강(君爲臣綱)·부위자강(父爲子綱)·부위부강(夫爲婦綱). 오상은 인(仁)·의(義)·예(禮)·지(智)·신(信).

9) 중국 전국시대 진(晉)나라의 경대부(卿大夫)의 묘지. 이후 묘지 황천길의 뜻하게 되었음.

10) 김상헌과 삼학사.

어이 아니 썩거지리

平生(평생) 一片(일편) 慕夏心(모하심)을 뉘기 손의 붓쳐 들고
怒髮(노발)이 衝冠(충관)하고
憤氣(분기)가 騰天(등천)하니
蒼天(창천)이 말이 업고 曉月(효월)이 淒涼(처량)하다
슬픈 마음 설운 회포[懷抱] 벗출 삼고 돌아서니
天地(천지)가 아득하고 눈물이 압플 막닉
이러하나 저러하나 平定禍亂(평정화란) 거의 되니
大駕가 환에[還御]하스 臣民(신민)이 稍定(稍定)하니
莫非天運(막비천운) 시겨시니
이달온들 어이하리

V.

匹馬(필마)로 다시 몰아 友鹿村(우록촌)¹⁾ 돌아올 제
塵世(진세)을 하죽하고 山中(산중)의 들어오니
無情(무정)하스 山川(산천)이요 有意(유의)하스 白鷗(백구)로다
黃鶴峰(황학봉) 께티 두고 仙遊洞(선유동) 들어가니
李謫仙(이적선) 安期生(안기생)²⁾이 이곳의 놀아던가
特立(특립)하스 저 鳳巖(봉암)은 괴이도 흘서이고
韶韶[蕭韶] 九成(구성)³⁾ 소리런가
西周(서주) 岐陽(기양) 여긔런가
이 어인 鳳鳥(봉조) 일흠 文明(문명)도 흘서이고
紫陽(자양)과 白鹿洞(백록동)은 朱夫子(주부자) 杖履地(장구지)⁴⁾라
거록하스 道德場(도덕장)이
맞췌와 갓틀시고
이늬에 後子孫(후자손)의 講學人(강학인)이 아니 날가
寒泉(한천)에 沐浴(목욕)하고 三聖山(삼성산) 바람 쇠여
石逕(석경)에 막딛 집혀 慕夏堂(모하당) 도라오니
稚子(치자)는 문의 서고 美酒(미주)는 盈樽(영준)하니
두석 잔 먹은 후에 비회(悲懷)가 절노 나넌
슬프다 一介(일개) 賊夫(적부)
萬里(만리) 殊方(수방) 붓쳐 잇서

어이 아니 꺾여지리.

평생 한 조각 모하심을 누구에게 의지하고
화난 머리카락 모자를 치켜 올려
분한 기운 하늘을 찔렀으니
푸른 하늘 말이 없고 새벽달은 처량하다.
슬픈 마음 설운 회포 벗을 삼고 돌아서니
천지가 아득하고 눈물이 앞을 막네.
이러하나 저러하나 환란 평정이 거의 되니
성상 가마 환궁하여 신민이 안정되네.
천운은 어쩔 수 없으리니
애달픈들 어이하리.

필마를 다시 몰아 우록촌에 돌아올 제
먼지 세상 하직하고 산중에 들어오니
정 없기는 산천이요, 뜻 있기는 갈매기로드.
황학봉 곁에 두고 선유동 들어가니
이적선 안기생이 이곳에서 놀았던가.
우뚝 선 저 봉암은 기이도 하였구나.
흥겹고 격조 있는 노래 소리 들리누나.
서주의 기양이 여긔런가.
이 어인 봉황 이름 이름도 밝혔구나.
자양과 백록동은 주부자가 머문 곳이라.
거록하네, 주자가 도덕을 펴던 곳과
맞추어 같을시고.
여기서 내 후손들이 선비가 아니 될까.
한천에서 목욕하고 삼성산 바람 쇠여
돌길에 지팡이 짚어 모하당 돌아오니
어린 애는 문에 서고 좋은 술은 독에 가득
두세 잔 먹은 후에 슬픈 마음 절로 나네.
슬프다, 일개의 오랑캐 사내로서
만리 타향에 의탁하여

1) '우록촌'은 사슴과 벗이 되는 마을, '황학봉'은 황새가 나는 봉우리, '선유동'은 신선이 사는 마을. '자양'은 북송 때의 도사 장백단(張伯端)의 호, '백록동'은 흰사슴이 사는 마을. '봉암'은 봉황이 앉는 바위, 이들은 작자가 주변 경치를 신선의 땅으로 생각하고 명명한 것으로 보임. 이중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지명은 '자양(산)'으로 우록리 동쪽에 있음.

2) '이적선'은 당나라의 시인 이백(李白). '안기생'은 신선술을 익혀 신선이 되었다는 진(秦)나라 때 사람.

3) '소소'는 순(舜)임금이 만든 악곡이고, '구성'은 아홉 번 곡(曲)을 바꾸어 연주한다는 것.

4) '주부자'는 송나라의 유학자 주희(朱熹). '장구'는 지팡이와 신으로 이름난 사람이 머무른 자취를 이르는 말.

罔極(망극)홀스 三朝恩(삼조은)¹⁾을
疊疊(첩첩)이도 입어서라
白骨(백골)이 흠이 된들 이 은혜를 갑플소냐
子孫(자손)이나 기쳐 잇서 聖人氓(성인맹)을 삼아 두고
世世 相傳(세세 상전) 孝忠(효충)하여 國恩(국은)을 갑프리라

VI.

男女 子孫(남녀 자손) 成行(성행)하여 眼前(안전)의 가득 하니
너희는 後生(후생)이라 聖恩(성은)을 어이 알리
이네 말 들은 후에
刻骨銘心(각곡명심) 不忘(불망)하라
榮達(영달)을 탐치 말고 몸작기만 숭상(崇尚)하라
가훈(家訓)을 지어 너여 後孫에 유계(遺戒))하고
慕夏堂(모하당) 현판(懸板)하여 平生只願(평생지원) 거러 두니
孝悌忠信(충제효신)²⁾ 業(업)을 습고
禮義廉恥(예의염치) 家風(가풍) 습아
子子孫孫(자자손손) 相傳(상전)하여 和睦(화목)으로 누어스라
西山(서산)의 일박(日薄)하니 年令(연령) 七十 老翁(노옹)니라
身後地(신후지) 점지(點地)하여
萬年幽宅(만년유택) 定(정)하였고
友鹿村(우록촌) 卜居(복거)하여 白雲明月(백운명월) 희롱 하니
羲皇氏(희황씨) 적 百姓(백성)인가 葛天氏(갈천씨)의 百姓인가
生逢堯舜(생봉요순) 自樂(자락)하고
有子有孫(유자유손) 이러 하니
平生(평생)에 願(원)한 바를 낫낫치 일위서라
南風(남풍)이 적로 불 제 故國(고국)을 싱각 하니
先墳(선분)이 平安(평안)한가 七兄弟(칠형제) 無事(무사)한가
至親骨肉(지친골육)들이 살아난가 죽었는가
간운사[看雲思] 춘초몽[春草夢]이
어난 적에 업슬소냐
國家(국가)에 不忠하고 私門(사문)에 不孝되니
天地間(천지간) 一罪人(일죄인)이 나뉘고 또 잇난가
안마도 세상의 뉘(흥)한 八字(팔자)는
나 하나 뿐인가 하노라

망극하구나, 세 임금 은혜를
거듭거듭 입었어라.
백골이 흠이 된들 이 은혜를 갚을 소냐.
자손이나 끼쳐 있어 성인 백성 삼아 두고
대대로 서로 전해 국은을 갚으리라.

남녀 자손 급제하여 안전에 가득하니
너희는 후생이라 성은을 어이 알리.
내 말을 들은 후에
뼈에 새겨 명심하여 잊지 마라.
영달을 탐치 말고 몸 닦기만 숭상하라.
가훈을 지어내어 후손에게 경계하고
모하당 현판하여 평생 가까이 걸어두니
효제와 충신을 가업 삼고
예의와 염치를 가풍 삼아
자자손손 서로 전해 화목하게 누었어라.
서산에 해지거니 칠십의 늙은이라.
죽은 뒤의 땅을 정해
만년 묵을 집을 정하였고
우록촌에 살 곳 정해 백운 명월 희롱하니
희황씨의 백성인가, 갈천씨의 백성인가.
살아서 요순임금 만나서 즐거웁고
자손 있어 이러하니
평생에 원한 바를 낱알이 이루었노라.
남풍이 때때로 불 때 고향 땅을 생각하니
선친 묘소 평안한가 칠 형제는 무사한가.
지친 골육들이 살았는가, 죽었는가.
지나는 구름 보고 봄날에 꿈꾸기가
어느 때라 없을 소냐.
국가에 불충하고 가문에 불효 되니
천지간에 큰 죄인이 나뉘고 또 있는가.
아마도 세상의 흥한 팔자는
나 하나 뿐인가 하노라.

1) 선조, 광해군, 인조.

2) 부모에 대한 효도, 형제 사이의 우애, 임금에 대한 충성, 벗 사이의 믿음.

1) 아래의 글들은 모두 윤영옥, “모하당의 문학” (민족문화논총. 23호, 2001)에 따른 것이다.

효유서(曉諭書), 임진(1592)년 4월 25일.

이 땅의 백성들은 모두 내 타이르는 말을 듣고 예전처럼 안도하고 각자 자기 일에 종사하여 동요하지 말고 흠어져 달아나지도 마시오. 내가 다른 나라 사람이고 선봉장이라고는 하지만 원본에 있을 때부터 여러분의 나라를 공격하고 여러분들을 괴롭히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맹세하였습니다.

조선이 예의의 나라임을 듣고 그 문물을 우러러보아 한 번 보고자 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로지 그 竭忠之心(갈충지심)을 늘 그리워하여 聖德(성덕)에 훈도되기를 바랐으니, 이같은 간절한 마음 잠시도 늦추어본 적이 없습니다. 마침 가토 기요마사가 나를 선봉장으로 뽑아 무기를 들고 군사를 거느려 이곳에 오기는 하였으나 내 차마 예의의 나라를 침노하거나 중하의 백성을 해칠 수 없으니, 만약 한 사람의 백성이라도 해치면 내 평소 갖고 있던 뜻을 저버릴 뿐만 아니라 또한 하늘에 죄지음이 되리니 내 어찌 차마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나를 다른 나라 사람이 침입해 왔다고 말하지 말고, 늙은이는 편케 하고 어린아이는 보살피며 농사짓는 사람은 농사짓고,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하여 나를 같은 나라 사람으로 보아 나를 피해 숨거나 직업을 버리지 마시오. 안심하고 밭 갈고 벼 따며 책 읽어 위로는 임금과 어버이 섬기고 아래로는 아내와 자식을 보살피시오.

만약 횡포하거나 침탈하거나 난잡한 군사의 폐단이 하나라도 있으면 곧바로 와서 알려 주시오. 군율로써 다스리겠습니다. 이전처럼 안도하여 소요하지 말아 나의 이 구구한 뜻에 따라 주기 바랍니다.

2) **청화서(淸和書)**, 임진년 4월 20일

임진년 4월 일 일본 좌선봉장 沙也可(사야가)는 삼가 목욕하고 머리 숙여 조선국 절도사 합하게 글을 올립니다. 엎드려 생각건대 저는 섬 오랑캐의 천한 사람 바닷가의 용렬한 사나이입니다. 태어나 어릴 적부터 강개함을 지녀 오랑캐의 천한 풍속을 싫어하였습니다. 자라서도 아는 바가 없었으나 다만 듣기를 해동에 조선이란 나라가 있는데 조선은 오로지 중하의 제도를 쫓아 의관 문물이 三代(삼대)와 다름이 없고 예악 형정이 당우를 본받아 맑아 彝倫(이륜)이 배풀어지며 九法(구법)이 바르고, 삼강 오상과 팔정 구경은 성경에 의거하여 부끄러움이 없고, 인의예의와 효제충신은 어진 스승을 쫓아 매우 밝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한 번 이 말을 들은 뒤에 강개한 마음이 더욱 간절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태어나 장부가 됨은 다행하나 불행히도 중하 문물의 땅에 태어나지 못하고 이 좁은 오랑캐의 나라에 태어나 오랑캐 됨을 면치 못하고 죽는다면 어찌 이 우주 사이에 영웅으로서 한이 되지 않겠는가, 하여 강개함을 마지않고 때로는 눈물 흘려 밥을 앞에 두고도 먹는 것을 잊고 누워서도 잠들지 못한 것이 오래였습니다.

이제 청정이 명분 없이 군사를 일으킴에 용력이 남다르고 담기가 뛰어나다 하여 특별히 저를 선봉장으로 삼았습니다. 동토가 예의의 나라임을 일찍이 들었고, 청정이 하늘을 욕되게 하여 명분 없이 군사를 일으킴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여 비록 청정의 손에 죽을지라도 선봉장이 되지 않고자 하였으나, 오로지 마음 가운데 갖고 있던 소원이 한 번이라도 조선에 보고자 하는 것이었으므로 억지로 선구가 되어 3천 군사를 거느리고 이 땅에 왔습니다.

와서 비로소 民物을 보건대 전쟁으로 어수선한 가운데서도 의관 문물이 들은 바와 같이 참으로 三代(삼대)의 예의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하의 문물로 이 오랑캐를 바꾸어 보자는 뜻이 왕성히 일고 큰 나무로 옮겨가고자 하는 마음이 크게 생겨 싸울 뜻이 없어 무기를 버렸습니다. 인의의 나라를 차마 해칠 수 없고 삼대의 백성을 차마 해칠 수가 없었습니다.

아아! 슬픔입니다. 넓고 넓은 이 세상에서 저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미 청정의 지휘를 어겼으니 청정의 낫을 볼 수 없고, 또 동토의 문물을 보았으니 속으로는 절도사 어른께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저의 진퇴가 실로 낭패이옵니다. 이제 저가 귀화하려 함은 지혜가 부족함도 아니요, 힘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재주가 못 미쳐서도 아니요, 용기가 장하지 못해서도 아닙니다. 병기가 정밀하지 않아서도, 기계가 불리해서도 아닙니다.

병기와 갑주의 굳기는 백만 군사를 꺾을 수 있고 모략의 비법은 천 길의 성가퀴도 압도할 수 있습니다. 한 번도 싸우지 않았으니 승부 또한 없습니다. 그러니 강약을 겨루어 보지도 않고 이처럼 강화함을 구하겠습니까. 그러나 간절히 바라는 바는 오로지 예의문물의 아름다움과 의관 풍속의 성대함을 우러러 예의의 나라에 성인이 다스리는 백성이 되고자 합니다.

이제 합하게서는 받아들여 허락해 주소서. 저를 휘하에 받아들여 주시면 마땅히 죽음을 무릅쓰고 힘을 다할 것이며, 거느리고 있는 삼천의 병사는 다 용감하고 사납고 재주 있는 검객들이라 합하를 위해 선구가 된다면 족히 한쪽을 감당할 것입니다. 합하게서 진실로 받아들여 더불어 계책 하신다면 함께 큰 공을 이루어 낼 것입니다.

사직을 보전하고 생민을 편안케 하여 동방의 성군으로 하여금 밤잠을 못 이루시는 근심을 덜게 하신다면 丹書鐵券(단서철권)으로 끝없이 공명을 드리울 것이요, 저는 나무를 잘 고른 새가 될 것이며, 합하게서는 나라를 지탱한 주석이 되실 것이니 어찌 저의 다행만하겠습니까. 합하게서도 큰 다행일 것입니다. 항공하고 부끄럽기 그지없어 머리를 조아립니다.

3) **군령장(軍令狀)**

소장은 외국 사람으로 이 나라에 와서 의탁하게 된 것은 金應瑞(김응서)를 통해서이니 응서와 소장은 主客(주객)의 관계입니다. 응서가 지금 큰 죄를 범하여 軍律(군율)의 다스림을 받게 되었는데 소장이 어찌 그의 죽음을 앓아서 보고만 있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소장이 왜장의 머리를 베어 응서의 목숨을 구하겠습니다. 만약 소장이 제독에게 드리는 약속을 어긴다면 소장의 목을 베어 김응서의 죄를 대신해 주소서. 이와 같이 군령에 대해 글을 올립니다.